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- (한국)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화상회의: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사례
- (일본)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시대와 일본의 지역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

지방재정

- (일본) 히로시마현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 도입현황과 과제

지역발전

- (미국) 텍사스 주 Jersey Village의 장기적 수해 복구 계획



히로시마현(広島県)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 도입현황과 과제

개요

- 산업 폐기물 매립세는 산업폐기물의 배출 억제, 리사이클의 촉진, 적절한 처리,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목적세
 - 2001년 미에현(三重県)이 처음으로 도입, 현재는 많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입
- 히로시마현(広島県)은 2003년 산업 폐기물 매립세를 시한입법으로서 도입
- 매립세의 산업 폐기물 행정 및 산업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문제점을 고찰

일본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 도입 배경

- 2000년 폐기물 처리법 개정 이후 배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산업 폐기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도 증가하여 정책전환이 필요했음
 - 산업 폐기물의 감량화(배출억제, 재사용, 재생이용 등에 의함), 우수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의 육성, 우수한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시설의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전환
-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정외세가 신설됨: 법정외세는 지방 세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세목 및 세율 등을 지자체조례로 도입 가능
- 산업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
 - 폐기물 처리를 행정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하여 우수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육성
- 산업 폐기물 매립세의 과세근거: 폐기물의 최종 매립지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및 정치적 부담의 증가로 인해 기존 매립지의 이용 연장, 또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원 조달의 필요성

히로시마현 (広島県)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

- 2003년에 도입될 당시에는 5년 시한으로 도입되었으나 2020년 현재까지 갱신되고 있음
 - 최종 매립지에의 매립량이 감소되고 있지 않는 점이 갱신이유, 매년 산업폐기물 배출량은

- 약 1400만 톤 정도이고 최종매립량은 최근에는 약 400만 톤 정도임(広島県a, 2020)
- 세수 추이: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수총액은 약 110억 엔, 2015년 이후에는 매년 6~7억 엔 정도의 세수가 있음(広島県b, 2020)
- 세수 용도: 3R(Reduce, Reuse, Recycle)의 추진,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추진, 계몽활동(환경 보전 활동 지원 사업), 기타(순환형 사회 추진)
 -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수용도를 보면 3R 추진이 53%로 가장 높고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42%, 계몽활동이 4%, 기타가 1%를 차지하고 있음(広島県b, 2020)

| 표 1 | 히로시마현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(2003년 도입)

도입 목적	최종 매립지의 매립량 감소
과세 대상	최종 매립지에의 산업 폐기물의 반입(배출 사업자 및 중간처리업자)
과세 표준	산업 폐기물의 중량(1000엔/t)
납세 방법	특별징수의무자(최종 처분 업자)의 신고납입(연 4회)

출처: 広島県·産業廃棄物(2020)를 참고로 작성

히로시마현(広島県)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의 효과 분석

- 히로시마현은 산업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하지 않은 현과 히로시마현의 매립량을 비교 분석: 히로시마현의 감소율이 높다는 결론을 가지고 매립세의 효과를 설명(広島県a, 2020)
 - 2015년 이후의 매립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으로 보서는 매립세의 효과라기보다는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 도입된 각종 리사이클 관련 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
- 세수를 활용한 사업의 효과는 미비: 세수 활용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사이클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으로 인한 리사이클의 증가 효과는 미비
- 결론적으로 히로시마현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는 지속적인 매립량의 감소를 유발하기에는 세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, 매립량 감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조달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음

히로시마현(広島県) 산업 폐물 매립세의 문제점 및 시사점

- 5년 마다 연장하는 한시법(限時法)의 한계: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한시법이 아니라 상시법(常時法)으로의 전환이 필요
- 히로시마현의 매립세는 기존의 산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책을 대체하는 정책수단이라기 보

- 다는 매립량 감량을 위한 기존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
- 매립량의 감량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히로시마현의 사례로 보았을 때는 매립세의 가격효과는 매우 한정적이고 매립량 감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조달의 측면이 매우 강함
 - 지자체에 의한 매립세보다는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세 도입이 필요함

참고문헌

- 環境省・産業廃棄物行政と政策手段としての税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(2003) 「産業廃棄物行政と政策手段としての税の 在り方」 (<https://www.env.go.jp/recycle/waste/zei-kento/chukan.pdf>)
- 広島県・産業廃棄物 (2020) (<https://www.pref.hiroshima.lg.jp/site/zei/1177301663057.html>)
- 広島県a (2020) 「産業廃棄物埋立抑制のあり方について」(<https://www.pref.hiroshima.lg.jp/uploaded/attachment/270039.pdf>)
- 広島県b (2020) 「税収の推移」(<https://www.pref.hiroshima.lg.jp/uploaded/attachment/400029.pdf>)



나성인 통신원

(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)

nasungin@shudo-u.ac.jp